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<b>보도자료</b>	2026. 6. 25.(목) <b>배포 즉시</b> 보도 가능		
<b>농업기술원</b>		미래농업육성과장	양석철	☎ 760-7300
		업무담당자	윤찬일	☎ 760-733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## 농업기술원,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건립 본격화

- 사업비 38억 원 투입...이달 말 착공해 12월 준공 목표 -

-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디지털 영농 기술을 선도할 차세대 정예 농업인 육성에 앞장선다.
-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미래 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공사의 첫 삽을 뜬다.
  - 농업기술원은 지난 5월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.
  - 교육센터는 내년 중 시설 구축과 운영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.
- 이번 교육센터 건립은 제주 지역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다.
  - 그동안 도내에 스마트팜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관련 기술을 배우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도내 농업인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.
- 교육센터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농산물원종장 부지에

조성된다.

- 주요 시설로는 교육동 481㎡와 실습용 스마트 온실 1,731㎡ 규모의 첨단 교육 시설을 갖추며, 분야별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.
- 교육 대상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특화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전문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농업인이다.
- 교육 과정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딸기, 토마토, 쌈채소 등 3개 작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, 작목별로 5명씩 선발해 총 20개월 과정의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.
- 교육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제주 농업인들이 지역 내에서 최신 영농 기술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.
-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운찬일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 연구사는 “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는 지역 농업인이 도내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는 핵심 교육 기반이 될 것”이라며 “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제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